

# '자연과 인류의 공생' 표방한

## 제주 돌담을 닮은 아쿠아리움

제주 섬 동쪽 오랜 세월 제주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온 섭지코지. 성산일출봉을 연결하는 섭지코지 해안사구는 신앙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3개의 사구지대가 결합한 대규모 해안사구 지대이다. 이곳에 돌·바람·여자가 많고, 도둑·거지·대문이 없는 섬, 제주. 이는 고난의 상징이며 제주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제주인의 강인한 정신을 말한다. 이런 주제로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향해 떠 있는 성산일출봉과 마주한 섭지코지에 제주 돌담처럼 제주와 하나 된 한화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 제주의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단순한 아쿠아리움의 기능을 넘어 제주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즐기고', '맛볼'수 있는 프리미엄 해양테마파크로 발전한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해녀 물질, 대형수조 다이빙, 해양동물 체험, 제주 정식 등 해양문화와 관련된 제주의 이야기를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곳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흥미와 더불어 바다 정복을 향한 꿈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장으로 해야 할 역할로 문화와 과학, 그리고 동물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프리미엄 해양테마파크이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주 서귀포 앞 바다 문섬에서 시작된다. 문섬의 바다는 태평양을 걸쳐 인도양, 대서양과 바다로 연결되어 있기에 서귀포 앞 바다의 문섬은 화

려한 산호초와 열대어로 연출한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늘 그 자리를 지켜주는 고향 맛 그대로의 추억을 이야기해준다. 문섬을 지나자마자 세계의 섬 곳곳에 있는 물고기들의 총집합한 모습에 범상치 않음을 금방 느끼면서 제주의 모든 것이 펼쳐진다.

제주에는 오래된 질문이 있다.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는가? 제주 바닷가에는 유난히 용과 바람에 이야기 많다. 제주에는 바람을 맞아 한라산을 향해 고개를 숙인 풍낭(팽나무), 그 풍낭들 사이로 해녀와 어부들은 마을마다 신당을 차렸다. 오늘도 마을 신당에서 돌래 떡(할망신께 올리는 쌀로만 빚은 떡)과 옥돔 한 마리를 정성스레 올리고 나온 해녀들.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 실제 제주의 바다를 재현한 세계 최대크기의 수조(23m X 9m)에서 해녀들의 물질을 준비하고 있다.

깊고 푸른 물에 의심 없이 내려가 훑날리는 낙엽처럼 공중에 몸을 던진 해녀는 암흑의 물속으로 빠져들어 가지만, 무슨 초능력이 발휘되고 있을까? 그녀가 물속에 착지한 그곳에는 물건들이 지천으로 깔려있다. 옥상에는 집이 있고 나무가 있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해녀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바다의 지형과 바다생물이 생태에 대한 인지적 지도가 있는 것 같다.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유구한 시간 동안 자연발생적인 생업수단의 하나로 시



아시아 최대의 수조용적량과 면적을 자랑하는 초대형 수족관 모습.

# 복합 프리미엄 해양 테마파크

,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



한화아쿠아플라넷제주 입구 전경사진.

작된 해녀 물질은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 전통문화를 여기서 재현하고 있다. 해녀 공연을 관람하다 보면 제주 해녀가 겪어 온 고난과 만선에서의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아쿠아플라넷의 소중한 가치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해양생태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해양문화의 가치'를 전파하고, '생태계 보존'이라는 명제를 대중에게 널리 알려

자연의 소중함과 드넓은 청정바다와 무궁무진한 해양 자원, 그리고 바다의 경외감을 넘어, 생명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아시아 최대의 수조용적량(10,800톤)과 25,600㎡(7,740평)의 면적을 자랑하는 초대형 아쿠아리움으로서 바다를 탈피해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 테마파크로 도약하고 있다.

이곳은 단순하게 생물전시, 공연만을 관람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환경오염으로 인해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해양생물의 종 보전과 번식을 위한 연구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고 수준의 '해양생물 연구 센터'를 오픈하여 해양생물의 구조와 치료를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로써 해양생물 연구 센터는 기업 내부의 인프라로만 구축되는 것이 아닌 산/학 연계활동으로 제주대학교 수의학과와 연계해 치료와 보호가 시급한 멸종위기 생물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해양생물 수의교육 인원과 해양생물 구조 인력 등의 교육업무도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자연과 인류의 공생'이라는 주제를 품고 교육, 문화, 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진 복합적 형태의 프리미엄 해양 테마파크로서 제주의 바다를 세상에 알리고 있다.

성산 일출봉에 터를 잡고 있는 제주 돌담처럼 제주와 하나 된 아쿠아플라넷 제주의 건물에서부터 수족관과 전시장을 연출한 모든 시설이 아름다운 제주를 재현하고 바다를 묘사한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함께 감상하면 여행의 큰 선물이 아닐까싶다.

〈한기원 기자/hankiwan@hanmail.net〉



아쿠아 판타지아(뮤지컬) & 아쿠아 스토리(바다사자, 돌고래) 공연장 모습.